

LG전자, ‘세계 환경의 날’ 맞아 국내외 환경보호 활동

전 세계 주요도시 전광판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영상 상영
환경 정화활동·캠페인도 펼쳐

LG전자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나선다.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전광판을 통해 환경 메시지를 전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는 자원순환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LG전자는 오는 13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공익 영상을 상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작한 이 영상은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과 토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폐플라스틱을 재생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되살리는 내용을 담아 전 지구적 실



LG전자가 오는 13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전광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공익 영상을 상영한다. 위 사진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영상을 상영 중인 모습. /LG전자

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상영은 LG전자가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온 ‘LG 희망스크린’ 활동의 일환이다. LG전자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제작한 공익 영상을 대형 전광판에 무료로 상영해 환

경·인권 등 지속 가능한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보호 실천도 함께 진행된다. LG전자는 세계 환경의 날을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올해는 전 세계 28개 사업장에서 임직원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법인에서는 나무심기 활동을, 싱가포르·대만법인에서는 사업장 인근 해변과 공원 정화 활동을 각각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E-순환페스티벌’이 이달 말까지 전국 LG베스트샵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LG전자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진행하는 친환경 가전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판촉 행사다.

▲재활용 용이성 ▲유해물질 저감 ▲재생원료 사용 등 11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E-순환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가전을 구매한 신규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당의 네이버·카카오페이 포인트가 환급된다. 대상 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 등 170여 종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오뚜기-한식진흥원 ‘K푸드 쿂�클래스’

오뚜기는 한식진흥원과 협업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외국인 대상 ‘K-Food 쿂�클래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클래스는 오뚜기가 한식 관련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식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대상 한국 분식 체험 클래스를 운영했다. /오뚜기



롯데GRS, 산학 협력 장학 프로그램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ESG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실제 비즈니스 경영 전략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 협력 장학 프로그램을 지난 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롯데GRS

환경부,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지원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정기총회
운영전략·규정 채택, 협력방향 논의

환경부가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 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란 한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앞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는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와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필리핀은 마닐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수



세종 환경부 청사. /메트로

립했다.

회원국·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접수받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고도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자원 연계를 통한 환경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산업 인재 양성

연세대 산학협력 연구 프로젝트 성료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나섰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연세대학교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물류 산업 발전’ 산학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은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과 지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물류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함께한 연세대 MSC(Masters of Supply Chain)은 교내 유일 SCM 학회로, 다양한 국내 기업들과 다년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 물류’와 ‘CFC(Customer Fulfillment Center) 즉시배송’ 두 가지 테마를 주제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적용 가능한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7명 대학생 학회원은 4개 팀으로 나뉘어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직원 및 연세대 지도교수진과 함께 2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서는 4개 팀이 각각 ▲국내 자율주행 화물차 미들마일 최적 환승 거점 도출 ▲수리모델로 접근하는 자율주행 화물차 최적 환승 거점 경제성 분석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임직원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시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애경산업,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정창원 생산부문장 상무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정창원 상무는 이영훈 삼양화성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았다. /애경산업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확대

참여 아파트단지 1000곳 추가 모집

현대홈쇼핑이 기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중·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폐전자제품을 철·구리·알루미늄 등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현대홈쇼핑은올해부터 캠페인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를 1000개 추가로 모집해 캠페인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거함 설치 참여 단지를 총 2000곳으로 늘리면, 전국 누적 참여 규모가 약 120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캠페인 활성화 마케팅 역시 기존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전국 주요 아파트에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현대홈쇼핑의 ESG 마스코트 ‘눈곰이’와 함께하는 친환경 OX 퀴즈, 친환경 자재로 구성된 포토존, 자전거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솔제지, 미 미시간주립대 초청 행사

한솔제지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패키징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대전공장에 초청,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4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초청 행사에 참가한 미시간 주립대 교수진 및 학생들은 한솔제지 대전공장을 견학하고 테라바스와 프로테고의 개발 배경과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솔제지



락앤락, 몽골 사막화 지역에 나무 식재

락앤락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몽골 사막화 지역에서 노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몽골 ‘투브 아이막 바양항가이 솜’ 지역에 비타민 나무, 비술 나무 등 1004그루 나무를 식재해 ‘락앤락의 숲’을 조성했다. /락앤락

오늘의 날씨

6월 5일 (목)

음력 : 5월 10일

수도권 날씨

15~2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15/21

파주 12/26

인천 16/24

수원 15/27

평택 13/28

연천 12/26

동두천 12/27

가평 11/27

서울 15/27

양평 13/28

용인 15/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